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Economic burden and its related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강이주*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Kang, Lee Ju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s about and factors related to expenditures of private educ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useful for future pre-school children edu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under seven years of age, who lived in Seoul and Incheo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parent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86.8% of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use private education and the average expenditure on it was 154, 446 won. Second,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i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r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parents' job characteristics, household income, and region. Thir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using private education among parents is to improve and excel in academic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Forth, the higher the parents' expected returns from private education are, the higher the expenditure level of private education is. Fifth,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s showed that parents' attitudes toward private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household economic burden associated with private education. The odds were 5 times greater for the parent group with strong desire for private education than for the parent group without it and 1.2 times greater for the parent group with high-expected returns from private education than the parent group without it.

In conclusion, systematic, universal educational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to provide and support all the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given that their current economic burden is substantial. By providing such support, we can help parents focus on public education.

This study examining current situations about and determining factor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mong pre-school children collected data limiting only Seoul and Incheon area, therefore, future studies need to include data collected nationwide for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As well, development of more elaborated survey instruments and analytical methods would advance our understanding in the field.

Key Words : private education, economic burden

I. 서론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교육비용 즉 투자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지위획득 등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가계는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지출을 계속 늘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간과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보다 질 높은, 보다 많은 사교육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왔으며, 이것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그리고 이제는 유아기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이 빈약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은 총 교육예산의 1%에 지

* Corresponding author: Kang, Lee Ju
Tel: 032)770-8250, Fax: 032) 770-8250
E-mail: lj kang@incheon.ac.kr

나지 않기 때문에 질 높은 공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점차 높아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전의 미취학 아동 즉 유아기의 사교육 열풍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학원이나 학습지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로 인한 문제는 중, 고등학생을 둔 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 지경(2003)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취학 자녀시기부터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사교육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관한 OECD의 진단과 대 정부권고(2004)”에 의하면 한국의 부모들은, 건강, 안전, 위생, 아동발달 등 전체적인 접근이 선호되어야 할 유아기에 지나친 학업성취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취학 전 유아교육을 “학령 이전 아동을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조기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의 취미나 소질을 개발하는 목적보다는 발달을 앞당기거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을 준비하는 의미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영,2003). 나 정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만 3세 이전부터 학습지를 하거나 영어, 체육 등을 비롯한 각종 학원을 이용하는 등 유치원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 납입하는 비용보다 과외로 지출되는 사교육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기숙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한글, 수학, 영어 등의 과외교육을 받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86%나 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교육은 심신의 발달과 인격을 수련하고 완성해가는 생애교육에 밀거름이 되기보다는 유아기의 교육이 초등학교의 선행학습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OECD(2004)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은 유아에 대한 공공투자 수준이 OECD 가입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투자의 약 1/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유아기에 대한 이러한 낮은 투자비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유아기의 교육투자를 이후 학령기의 투자 보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우회적 표현일 뿐 아니라 이 시기의 교육을 현재처럼 거의 교육소비자의 형편과 욕구의 정도에 따라 이루지는 사적 투자에만 의존한다면 아동발달에 꼭 필요한 주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으며 교육이 어느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결

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육성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과 관련된 경쟁의 심화로 중, 고교에서의 사교육문제가 너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유아교육에의 투자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성급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열기는 이들에게 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불사하고 사교육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승신(2002)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지출이 큰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되면 의, 식, 주, 건강, 노후준비 등 여타의 중요한 비목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저축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안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복지문제는 중, 고등학생을 둔 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거의 모든 가정의 문제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령기 이후(주로 중, 고교)의 학생들과 그 가정의 문제에 집중되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서울 지역의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동기와 종류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만족도와와의 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정책 당국자로 하여금 교육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에서 우선순위와 교육소비자의 기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의 정의

사교육에 대한 초기의 연구(공은배·천세영,1989; 김인숙·여정성,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에서는 사교육비를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 예, 체능과 관련된 재능개발이나 학원수강, 과외교습, 학습지구독 등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김홍주 외(1999)의 연구에서 비로소 사교육의 개념을 체계화 시켰

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란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즉, 학교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교육부(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교육개발원(2003) 등에서도 이 개념을 원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입시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특기 및 재능학원비, 교내 방과 후 과외비, 학습지 및 통신 과외비, 취업준비 학원비와 그 교재비 등을 사교육비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모두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김지경(2004)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상기 연구의 정의를 받아들여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사교육이라 칭하고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공교육비로 보고 그 외의 추가적인 선택적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금택(2004)도 유아 사교육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사교육을 상기 연구들(김홍주 외, 교육부, 교육개발원 등)의 정의를 원용하면서 사교육비의 범주를, 과외 교육비(개별적으로 받는 과외 및 그룹과외비로 학습지, 놀잇감 교구, 미술, 음악, 컴퓨터, 어학 등의 수강료), 학원 교육비(개인의 특기와 재능·학습을 개발·신장하기 위한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수영, 태권도 등의 수강료), 방과 후 교육비(유아교육 기관에서 정규 수업 이외의 특별수업 등을 받는 데 드는 어학, 놀잇감 교구, 미술, 음악, 태권도, 발레 등의 수강료)로 구분하였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용을 공교육비로 간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교육비란 국가 공교육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투자되어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 교육법 제37조 1항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기간 학제에 편입하여 무상교육을 법제화 하였기에 유치원에 납부하는 교육비를 공교육비로 구분하였으며,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비도 공교육비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 사교육비 구분에 대하여 김선희(1997)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면 어떤 재원도 공교육비로 간주되는 점과 교육비 지출 행

위자가 공공단체나, 개인이나에 따라 공, 사교육비를 구분하는 점은 논리적 모순과 국제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교육비의 개념을 교육비 지출 행위자에 의해서 분류하기 보다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지경과 서금택 그리고 김선미의 정의를 참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별 가계에서 지출되는 선택적 교육비용으로 그것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든 학원에서 이루어지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든 정규 공교육비 이외에 지출되는 모든 교육비용 즉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재능교육, 어학, 컴퓨터, 한문, 산수 등의 학원과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과 관련된 비용 등을 총칭하여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서론에서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었는데 최근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연구(서금택, 2004; 김지경, 2004 등)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계소득, 부모의 직업, 학력, 연령, 가족형태, 자녀의 성별과 연령,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등으로 나타나 기존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달 평균 지출규모도 10~20만 원대로 나타나(신화식, 1998; 서금택, 2004; 김지경, 2004)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지출규모(이승신, 2002; 이성림, 2005, 2006; 통계청, 2001)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규교육에 앞서 미취학 아동의 선행학습이 유아 때부터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가중되어 결국 출생률 저하와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의 종류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무게를 둔 것이고(신화식, 1998; 이기숙 외, 2001; 박수진, 2001 등) 둘째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것(김인숙·여정성, 1996; 정영숙, 1997; 김시월·박배진, 1999; 이승신, 2002; 김지경, 2004; 이성림, 2006 등)이며 셋째는 심리적 요인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이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것(박배진, 1997; 김시월, 1999; 안지영, 2003; 이은우, 2004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식(1998)은 서울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악, 미술, 한글, 체육, 학습지 등 특기교육을 포함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정이 93.7%로 미취학 아동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지출비용은 21~30만원이 가장 많았고, 11~20만원, 5~10만원, 31~40만원, 의 순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61만원 이상의 가정도 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기숙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한글을 포함한 예체능 등의 조기 사교육 이용자가 86%에 달하고 있으며 월 평균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의 비율이 1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서울과 신도시 지역의 만 4~6세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안 지영(2003)의 연구에서는 87.6%의 아동이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최소 1가지에서 최대 8가지의 교육을 받고 있어 평균 2.64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가계소득과 부모의 학력은 가장 일관성있게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변수이다.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인숙·여정성(1996)은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별 소비지출 구성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집단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한 여타의 비목 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정된 소득에서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아지면 결국 다른 비목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영숙(1997)의 대구,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부모 51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지출수준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상층인 경우 그리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형선·윤정혜(1999), 박미희·여정성(2000)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자녀가 있는 895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이용 여부와 그 비용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김 지경(2004)은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많게 나타났지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가계에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엄마의 취업여부와 가족형태 그리고 사교육이용자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 가정 보다는 취업주부가정, 비핵가족 가정 보다는 핵가족형태의 가정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자는 3~5세의 아동들에게 취해지는 사교육비는 보육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성림(2006)은 2002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별 사교육비 조달을 위한 경제적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교육비의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일 정도의 영향력 있는 가구가 일부 존재하며 이들은 상, 중, 하의 소득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 중 사교육비 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축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일상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대비가 불충분한 상태이며 이들은 전체 가계의 약 31%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소득과 부모의 학력과는 달리 자녀의 연령, 자녀수, 자녀의 성별, 가구주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문숙재 외(1996), 박미희·여정성(2002), 이 승신(200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정영숙(1996),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딸인 경우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박미희·여정성,1996)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또 어머니의 취업 여부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가계가 전업주부의 가계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박 미희·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가계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박기백(1998)의 연구에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중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 사교육 실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안 지영(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받는 조기교육의 가지 수가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예능과 특기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 보다 가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부담감이 클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았지만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큰 가계에서는 경제적 복지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우(2004)의 연구에서도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시월의 연구를 부분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녀의 성취를 위한 투자만족도로 복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승진(2002)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동시에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복지와 만족도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거의 전 가계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지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 즉 사교육의 동기는 학생의 70.3%와 부모의 59.6%가 학교교육 보다는 학원과의 학교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양분, 김미숙, 2002).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사교육의 선택 보다는 주변의 다른 가정의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가 무엇이며 몇 개나 받고 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시키려는 심리적 경향을 들 수 있다(양정호, 2006). 또한 주문자와 황덕순(2005)은 “사교육비 지출행동에서 비인지 요인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감정적 태도가 주변 환경요인들과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여의 정도와 맞물리면서 사교육 소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봐왔는데 일관성을 보이는 변수들(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그렇지 않은 변수들(자녀수, 연령, 어머니의 취업 및 직업, 경제적 부담감)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사교육 시작 연령 및 범주와 지출비용)는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어떠한가?
- 3) 사교육에 대한 동기는 무엇인가?
- 4) 사교육 유형별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5) 사교육에 대한 가계경제의 부담 여부와 관련변수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실태 및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천과 서울지역 7세(우리나라 나이)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천지역을 동, 서, 남, 북구의 4개 구로 나누어 각 구에 50개씩,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각 각 70개씩 총 340개를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2004년 5월 초에 50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수정을 거쳐 설문지를 확정된 후 2004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40부를 배부하여 296부를 회수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거주지, 부모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자녀여령, 가계소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사교육의 시작연령, 사교육의 범주 및 종류, 지출비용) 그리고 사교육의 동기와 태도, 효과와 부담정도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동기를 측정할 문항은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통한 학부모의견을 바탕으로 9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작성하였고 이를 요인분석 한 요인 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모두 0.6 이상 이었다(표 7에 제시하였음).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능력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시설 및 비용에 있다는 일반론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 별 5점 Likert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0.7472였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문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시키고 싶다”, “인위적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다”의 두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교육의 효과와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측정은 5점 Likert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체 타당도는 연구의 측정 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척도도의 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

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5>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요인분석과 logistic regression 이용한 후 승산확율을 구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모두 148명으로 같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은 5세(32.1%), 7세(22.6%), 6세(19.3%)로 5세가 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자녀가 198명(66.9%)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을 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수는 257명(86.8%)으로 대다수가 사

교육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숙 외 (2001)와 안 지영(2003)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0세(51.4%), 36~40세(25.3%), 26세~30세(14.2%), 40세 이상(9.1%) 순으로 31~35세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인천이 183명(61.8%), 서울이 113명(38.2%)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35.1%), 200~300만원 미만(30.4%), 400~500만원 미만(15.9%), 500만원 이상(10.1%), 200만원 미만(8.4%) 순으로 300~400만원 미만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210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모두 대학교졸업(아버지 68.2%, 어머니 62.8%)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행정 및 관리직(42.2%), 전문·기술 및 관리직(3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55.1%), 전문·기술 및 관리직(18.6%), 행정 및 관리직(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범주	빈도(%)	구분	특성	범주	빈도(%)
자녀 특성	성별	남아	148(50)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30세	42(14.2)
		여아	148(50)			31세~35세	152(51.4)
	출생 순위	첫째자녀	198(66.9)			36세~40세	75(25.3)
		둘째자녀	80(27.0)			40세 이상	27 (9.1)
		셋째자녀	17 (5.7)		직업	전업주부	163(55.1)
		넷째자녀	1 (0.3)			전문,기술 및 관련직	55(18.6)
	자녀 연령	3세 이하	25(8.4)			행정 및 관리직	33(11.1)
		4~5세	147(49.7)			사무 및 관련직	25 (8.4)
		6~7세	124(41.9)		판매 및 서비스직	20 (6.8)	
	사교육 여부	한다	257(86.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92(31.1)
하지않는다		39(13.2)	대학교 졸업	186(62.8)			
가계 특성	거주지	서울	113(38.2)	아버지 특성		직업	대학원 졸업
		인천	183(61.8)		무직		2 (0.7)
	주거 형태	아파트	210(70.9)		전문,기술 및 관련직		90(30.4)
		연립주택	55(18.6)		행정 및 관리직		125(42.2)
		기타	31(10.4)		사무 및 관련직	49(16.6)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이하	25 (8.4)		판매 및 서비스직	30(10.1)	
		200~300만원 미만	90(30.4)		교육 수준	고등학교졸업	41(13.9)
		300~400만원 미만	104(35.1)			대학교졸업	202(68.2)
		400~500만원 미만	47(15.9)			대학원졸업	53(17.9)
		500만원 이상	30(10.1)		전체		296(100)

IV. 결과 및 해석

1.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교육의 시작연령과 빈도, 사교육을 시키는 종류 수(범주) 그리고 월평균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시작연령은 4세와 5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말을 어느 정도 구사하는 3세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2세에 시작하는 가계도 10.9%로 나타나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가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시키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는 2가지, 1가지, 3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키지 않는 가계도 전체의 15.2%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가 한 달 동안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15만원 미만인 26.4%로 가장 많았고, 21~2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계가 23.0%로 그 다음이고 15~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계가 11.5%로 3위였으며 26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35만원 이상도 14가계로 5%의 분포율을 보였다. 이는 노동패널 조사자료(2002)를 이용한 김 지경(2004)의 연구결과에서 월 평균 14만8천원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이나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 화식(1998)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는 데 주된 이유는 조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체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로 월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기관인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합치면 이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비의 지출규모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t-test 와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만을 제시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인천보다 약 45,000원 더 많았다. 또한 월 평균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가계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3배 이상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2006)의 소득계층 별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상위 10% 계층의 사교육비가 하위 10% 계층의 10배가 된다고 보고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의 소득계층 별 차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각 가계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54,446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 지경(2004)에서 특히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사교육 비용이 높게 나타나 이 연령층의 사교육비는 보육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 및 서비스직일 경우에는 전업주부보다 더 적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사무 및 관련직, 행정 및 관리직 순으로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았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어머니 직업과 마찬가지로 전문, 기술 및 관련직이 가장 많이 지출하였

<표 2> 가계의 사교육 시작연령 및 범주와 지출비용

사교육 시작연령	빈도(%)	범주	빈도(%)	월 지출비용	빈도(%)
0~2세	32(10.9)	0	45(15.2)	15만원 미만	78(26.4)
3세	56(18.9)	1	78(26.4)	15~20만원 미만	34(11.5)
4세	71(24.0)	2	89(30.1)	21~25만원 미만	68(23.0)
5세	71(24.0)	3	60(20.3)	26~30만원 미만	23 (7.8)
6세	25 (8.4)	4	17 (5.7)	31~35만원 미만	29 (9.8)
7세	4 (1.4)	5	7 (2.4)	35만원 이상	14 (4.7)
Missing	37(12.5)			Missing	50(16.9)
전체	296(100%)	전체	296(100%)	전체	296(100%)

<표 3>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월 평균 지출 사교육비규모

항목	집단 구분	빈도(명)	월평균 사교육비(원)	F값/t값	Duncan의 사후검정
거주지	서울	103	181,058	-3.104**	
	인천	148	135,926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74	125,162	6.104**	A
	대학교 졸업	160	160,406		A
	대학원 졸업 이상	17	225,824		B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34	105,059	9.848***	A
	대학교 졸업	166	147,693		B
	대학원 졸업 이상	51	209,353		C
어머니 취업여부	전업주부	139	128,820	-3.781***	
	취업주부	112	186,25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39	128,820	10.844***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48	242,396		B
	행정 및 관리직	28	142,179		A
	사무 및 관련직	20	170,650		A
	판매 및 서비스직	16	114,438		A
아버지 직업	무직	2	70,000	4.754***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77	199,429		B
	행정 및 관리직	110	139,345		A. B
	사무 및 관련직	37	128,081		A. B
	판매 및 서비스직	25	128,120		A. B
주거형태	아파트	181	171,586	8.119***	B
	연립주택	46	100,152		A
	기타	24	129,250		A. B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8	78,556	19.516***	A
	200~300만원 미만	72	110,472		A. B
	300~400만원 미만	86	146,709		B C
	400~500만원 미만	47	184,745		C
	500만원 이상	28	289,214		D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대졸 이하	137	134,109	-3.923***	
	대학원 졸	114	178,886		
평균 사교육비(원)			154,446		

*P<0.05, **P<0.01, ***P<0.001

* 결측값으로 인하여 전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고 행정 및 관리직, 판매 및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별로는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며,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위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사교육 이용과 사교육비의 영향 요인들 중 그 분석 대상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요인이 가계소

득과 학력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의 범위와 종류 및 만족도

1)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의 범위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 범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 t-test와 Duncan의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실시하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가계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취업주부 가계가 더 많은 사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 전문, 기술 및 관련직, 판매 및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기술 및 관련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들은 전업주부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전

문, 기술 및 관련직, 사무 및 관련직, 행정 및 관리직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실시하였으며, 소득수준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실시 범위가 많아졌다.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가계는 평균 2.15개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지역을 조사한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2.64개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의 범위

항목	집단 구분	빈도(명)	평균 사교육 종류수	F값/t값	Duncan
거주지	서울	103	2.38	-3.025**	
	인천	148	1.99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74	1.92	6.521**	A
	대학교 졸업	160	2.17		A
	대학원 졸업 이상	17	2.88		B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34	1.94	4.802**	A
	대학교 졸업	166	2.07		A
	대학원 졸업 이상	51	2.53		B
어머니 취업여부	전업주부	139	2.03	-2.006*	
	취업주부	112	2.29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39	2.03	5.302***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48	2.73		B
	행정 및 관리직	28	1.96		A
	사무 및 관련직	20	1.85		A
	판매 및 서비스직	16	2.13		A
아버지 직업	무직	2	1.00	5.039***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77	2.55		B
	행정 및 관리직	110	1.98		A B
	사무 및 관련직	37	2.05		B
	판매 및 서비스직	25	1.88		A B
주거형태	아파트	181	2.26	4.598*	B
	연립주택	46	1.76		A
	기타	24	2.04		A B
경제수준	200만원 미만	18	1.50	11.721***	A
	200~300만원 미만	72	1.76		A B
	300~400만원 미만	86	2.17		B C
	400~500만원 미만	47	2.43		C
	500만원 이상	28	3.00		D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대졸 이하	137	1.87	-4.931***	
	대학원 졸	114	2.48		
평균 사교육의 범주(개)			2.15		

*P<0.05, **P<0.01, ***P<0.001

※ 결측값으로 인하여 전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2) 사회인구학적변수(소득,부모의 교육수준,거주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 등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① 가계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

가계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를 살펴보면 영어, 음

악, 체육, 과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과 음악교육의 경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 시킨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시키는 비중이 시키지 않는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소득계층의

<표 5>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에 따른 사교육의 유형

교육종류	교육여부	가계소득					전체	X ²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영어	시킨다	3 (12.0%)	24 (26.7%)	46 (44.2%)	27 (57.4%)	26 (86.7%)	126 (42.6%)	47.101***
	시키지 않는다	22 (88.0%)	66 (73.3%)	58 (55.8%)	20 (42.6%)	4 (13.3%)	170 (57.4%)	
음악	시킨다	5 (20.0%)	22 (24.4%)	30 (28.8%)	13 (27.7%)	17 (56.7%)	87 (29.4%)	12.961*
	시키지 않는다	20 (80.0%)	68 (75.6%)	74 (71.2%)	34 (72.3%)	13 (43.3%)	209 (70.6%)	
체육	시킨다	5 (20.0%)	10 (11.1%)	23 (22.1%)	18 (38.3%)	5 (16.7%)	61 (20.6%)	14.386**
	시키지 않는다	20 (80.0%)	80 (88.9%)	81 (77.9%)	29 (61.7%)	25 (83.3%)	235 (79.4%)	
과학	시킨다	0 (0%)	1 (1.1%)	10 (9.6%)	4 (8.5%)	5 (17.2%)	20 (6.8%)	12.962*
	시키지 않는다	25 (100%)	89 (98.9%)	94 (90.4%)	43 (91.5%)	24 (82.8%)	275 (93.2%)	
전체		25 (100%)	90 (100%)	104 (100%)	14 (100%)	29 (100%)	295 (100%)	
교육종류	교육여부	교육수준			전체	X ²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어머니	음악	시킨다	18 (19.6%)	58 (31.2%)	11 (61.1%)	87 (29.4%)	13.295**	
		시키지 않는다	74 (80.4%)	128 (68.8%)	7 (38.9%)	209 (70.6%)		
	체육	시킨다	14 (15.2%)	34 (18.3%)	13 (72.2%)	61 (20.6%)	31.559***	
		시키지 않는다	78 (84.8%)	152 (81.7%)	5 (27.8%)	236 (79.4%)		
전체		92 (100%)	186 (100%)	18 (100%)	296 (100%)			
아버지	영어	시킨다	14 (34.1%)	80 (39.6%)	32 (60.4%)	126 (42.6%)	8.791*	
		시키지 않는다	27 (65.9%)	122 (60.4%)	21 (39.6%)	170 (57.4%)		
	음악	시킨다	5 (12.2%)	60 (29.7%)	22 (41.5%)	87 (29.4%)	9.602**	
		시키지 않는다	36 (87.8%)	142 (70.3%)	31 (58.5%)	209 (70.6%)		
	체육	시킨다	7 (17.1%)	32 (15.8%)	22 (41.5%)	61 (20.6%)	17.270***	
		시키지 않는다	34 (82.9%)	170 (84.2%)	31 (58.5%)	235 (79.4%)		
전체		41 (100%)	202 (100%)	53 (100%)	296 (100%)			
교육종류	교육여부	거주지		전체	X ²			
		인천	서울					
영어	시킨다	63 (34.4%)	96 (55.8%)	126 (42.6%)	12.996***			
	시키지 않는다	120 (65.6%)	50 (44.2%)	170 (57.4%)				
음악	시킨다	45 (24.6%)	42 (37.2%)	87 (29.4%)	5.326*			
	시키지 않는다	138 (75.4%)	71 (62.8%)	209 (70.6%)				
체육	시킨다	31 (16.4%)	31 (27.4%)	61 (20.6%)	5.204*			
	시키지 않는다	153 (83.6%)	82 (72.6%)	235 (79.4%)				
전체		183 (100%)	113 (100%)	296 (100%)				

*P<0.05, **P<0.01, ***P<0.001

※ 결측값으로 인하여 전체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경우에는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체육교육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시키지 않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400~500만원의 계층에서 여타의 소득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시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교육의 경우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영어, 음악, 체육보다 시키지 않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서 거의 모든 가계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분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일관성 있게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는 영어, 음악, 체육, 과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시키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계층에서 외국어나 음악 등의 특기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글, 미술, 컴퓨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는 음악과 체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 여부를 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 음악교육을 시키는 비중(61.1%)이 시키지 않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경우는 음악교육을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 여부 역시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 체육교육을 시키는 비중(72.2%)이 시키지 않는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경우에는 음악교육을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영어, 미술, 컴퓨터, 과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글과 영어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시킨다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미술·컴퓨터·과학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시키고 있는 교육종류의 차이를 보면 영어, 음악, 체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은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 영어교육을 시키는 비중이 시키지 않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는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모두 시키지 않는 비중이 시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

력이 낮을수록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체육교육도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모두 시키지 않는 비중이 시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글·미술·컴퓨터·과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글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시키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미술·컴퓨터·과학의 경우에는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음악, 체육에서 차이를 보였고, 아버지의 경우 영어, 음악, 체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키지 않는 비중이 시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표현영역인 음악, 체육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표현영역인 음악,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도구적 표현영역인 영어교육에도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거주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

거주지에 따른 사교육의 종류는 영어, 음악, 체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교육은 인천의 경우 “시키지 않는다”(65.6%)가 “시킨다”(34.4%)보다 31.2% 많았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킨다”(55.8%)가 “시키지 않는다”(44.2%)보다 11.6% 많았다.

음악교육은 인천의 경우 “시키지 않는다”(75.4%)가 “시킨다”(24.6%)보다 많았으며, 서울 역시 “시키지 않는다”(62.8%)가 “시킨다”(24.6%)보다 많았으나 인천이 서울에 비해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체육교육 역시 인천과 서울 모두 “시키지 않는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이 서울에 비해 시키지 않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는 영어, 음악, 체육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 음악, 체육 모두 서울이 인천보다 “시킨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글, 미술, 컴퓨터, 과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글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킨다”의 비중이 높았으며, 미술·컴퓨터·과학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키지 않는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주거형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등에 따라서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교사능력, 교육내용, 교육비용, 교육시설)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라 교사의 능력, 교육의 내용, 교육비용,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p<.05)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능력, 교육내용, 교육비용,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 이를 제시하였다.

<표 6>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사교육의 만족도

항목	만족도	집단구분	빈도(명)	평균만족도(표준편차)	F값(t값)	Duncan
어머니의 연령	교육내용	26~30세	38	3.84(0.679)	2.925*	A
		31~35세	140	3.79(0.547)		B
		36~40세	73	3.71(0.456)		B
		40세 이상	24	3.46(0.588)		B
	교육비용	26~30세	38	3.32(0.739)	8.579***	A
		31~35세	140	3.34(0.727)		B
		36~40세	73	3.01(0.874)		B
		40세 이상	24	2.54(0.977)		B
어머니 교육수준	교육비용	고등학교 졸업	87	3.09(0.923)	3.265**	A
		대학교 졸업	171	3.18(0.772)		A
		대학원 졸업 이상	17	3.65(0.702)		B
	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87	3.18(0.755)	3.881**	A
		대학교 졸업	171	3.24(0.699)		A
		대학원 졸업 이상	17	3.71(0.588)		B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교육내용	대졸 이하	151	3.81(0.550)	4.285*	
		대학원졸 이상	124	3.67(0.552)		
아버지 직업	교사능력	무직	2	3.00(0.000)	6.361***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82	3.85(0.500)		A B
		행정 및 관리직	121	3.53(0.633)		A B
		사무 및 관련직	44	3.55(0.627)		B
		판매종사자	26	3.92(0.392)		B
	교육내용	무직	2	3.00(0.000)	3.703**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82	3.90(0.487)		B
		행정 및 관리직	121	3.64(0.561)		B
		사무 및 관련직	44	3.75(0.615)		B
		판매종사자	26	3.77(0.514)		B
	교육비용	무직	2	2.00(0.000)	4.431**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82	3.39(0.843)		B
		행정 및 관리직	121	3.01(0.791)		B
		사무 및 관련직	44	0.18(0.756)		B
		판매종사자	26	3.42(0.857)		B
	교육시설	무직	2	2.00(0.000)	7.356***	A
		전문, 기술 및 관련직	82	3.54(0.706)		B
		행정 및 관리직	121	3.07(0.660)		B
		사무 및 관련직	44	3.20(0.734)		B
		판매종사자	26	3.35(0.689)		B

*P<0.05, **P<0.01, ***P<0.001

(만족도 : 1-매우 불만족스럽다 2-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30대 미만의 집단과 그 이상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30대 미만의 집단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그 이상의 집단에서는 이들 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40대 이상 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비용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두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교사능력, 교육내용, 교육비용, 교육시설 등 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종이나 판매직일 경우 여타의 직업군보다 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무직일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연령대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내용이나 비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업군일때 만족도가 높았다.

4. 사교육에 대한 동기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동기문항들을 오블리민(Oblimin)회전 방법으로 회전시킨 후 주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묶임 문항의 성질에 따라 제1요인은 “선행학습 및 소질개발”이라 명명하였고 제2요인은 “균형발달”이라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취학 아동에게 시키는 사교육의 동기가 균형발달 보다 선행학습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수진(2001)에서 “주위에서 시키기 때문에”와 이홍로(2002)에서 “학부모의 경쟁심리 때문에”라는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다만 그 정도가 조금은 완화되었고 정서와 사회성 발달 등의 전인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 커졌다는 점(5점 만점으로 한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사교육의 종류별 효과

부모들이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효과의 정도와 평균 사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은 각 발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3개의 교육종류와 그 평균 사교육비를 제시하였다.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 중에서 신체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육(4.37), 음악(2.92), 과학(2.85)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체육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평균 73,33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음악, 과학의 신체 발달에 대한 평균 효과의 정도는 3.38로 나타났다.

정서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술(3.94), 음악(3.89), 체육(3.39)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미술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평균 7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음악, 체육의 정서 발달에 대한 평균 효과의 정도는 3.74로 나타났다.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육

<표 7> 사교육의 동기문항 요인분석표

문항	요인1	요인2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765	.00
초기에 지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687	.371
아이가 특별한 곳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676	.202
주위의 권유로	.528	.120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19	.785
균형있는 신체 및 정서발달을 위해서	.317	.725
또래들과 어울리게 함으로써 활발한 성격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2.683E-02	.725
나보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일찍부터 제공해주고 싶어서	.425	.587
교유치	2.847	1.133
설명변량	35.584	14.158
Cronbach's Alpha	.6095	.6805

<표 8>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효과의 정도와 평균 사교육비

구분		만족도 1위	만족도 2위	만족도 3위	평균 효과의 정도
신체발달	종류(평균/표준편차)	체육(4.37/0.55)	음악(2.92/0.93)	과학(2.85/1.14)	3.38
	평균사교육비	73,033원	78,908원	76,400원	
정서발달	종류(평균/표준편차)	미술(3.94/0.84)	음악(3.89/0.77)	체육(3.39/1.01)	3.74
	평균사교육비	70,000원	78,908원	73,033원	
사회성발달	종류(평균/표준편차)	체육(3.74/0.73)	컴퓨터(3.56/0.73)	음악(3.39/0.70)	3.56
	평균사교육비	73,033원	54,286원	78,908원	
언어 및 지적능력발달	종류(평균/표준편차)	컴퓨터(4.33/0.72)	한글(4.19/0.73)	영어(4.18/0.84)	4.23
	평균사교육비	54,286원	44,868원	94,992원	

(효과의 정도 1-전혀 효과 없다 2-별로 효과 없다 3-보통이다 4-약간 효과가 있다 5-매우 효과 있다)

(3.74), 컴퓨터(3.56), 음악(3.39)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체육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평균 73,33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컴퓨터, 음악에 대한 사회성 발달의 평균 효과의 정도는 3.56으로 나타났다.

언어 및 지적능력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4.33), 한글(4.19), 영어(4.18)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평균 54,28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한글, 영어의 언어 및 지적능력 발달에 대한 평균 효과의 정도는 4.23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신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는 체육, 정서발달에는 미술, 언어 및 지적능력 발달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다른 교육종류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출비용 대비 교육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한글과 컴퓨터로 나타났다.

6. 사교육에 대한 가계경제의 부담 여부와 관련변수들의 관계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가계경제의 부담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승산확률을 구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에 대한 효과, 전체적인 사교육 만족도, 사교육비 및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가 가계경제의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효과를

<표 9>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여부와 관련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분석

(n=166)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사교육 동기			
요인1(선행학습 및 소질개발)	.393	.324	1.481
요인2(균형발달)	-.128	.312	.880
사교육에 대한 효과	.221**	.087	1.247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569*	.342	.506
사교육비	.000*	.000	1.000
사교육에 대한 태도			
인위적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음	.546	.609	1.726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시키고 싶음	1.60***	.554	4.955
상수(Constant)	-2.62	1.60	.073
-2Log likelihood		210.268	

*P<0.05, **P<0.01, ***P<0.001

많이 느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높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의 효과를 많이 느끼는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1.2배 높았으며, 사교육비의 지출이 큰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1.0배 높았고, 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지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집단에 속할 승산확률이 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반적인 사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집단에 속할 승산확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모으지 못하였던 분야인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를 알아봄과 동시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 여부와 이에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교육소비자인 가계와 공급자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취학아동의 사교육은 조사대상 가계의 86.8%가 시키고 있었으며 시작연령은 주로 3세에서 5세 사이에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평균 2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사교육의 종류별로는 한글, 컴퓨터 등 초등학교 이후의 선행학습에 해당되는 분야는 모든 가정이 시행하고 있었고 전인교육이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해당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과 부모의 교육수준 별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사교육비의 규모에서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업 집단에 속할수록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사교육비는 200만원 미만 가계의 3배 이상이나 되었다. 그리고 가계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15만4천 여원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계 소득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집단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사교육의 만족도를 교육내용, 교육비용, 교육시설, 교사의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용과 교육시설에 대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에 대한 동기는 크게 두개의 요소로 구분되었다. 제 1요인은 선행학습 및 소질개발이며 제 2요인은 균형발달이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동기는 취학 이후의 선행학습에 더 큰 비중이 있으며 그 다음이 정서나 사회성과 신체발달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 종류별 효과는 신체발달의 경우 체육, 정서발달의 경우 미술, 사회성발달의 경우 체육, 언어 및 지적능력 발달의 경우 컴퓨터가 다른 교육종류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 여부와 관련변수들의 효과를 logit 분석을 행한 후 승산확율을 구한 결과 가장 큰 승산확율을 보인 변수는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서 사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가계부담을 느낄 확률이 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지가 큰 집단, 사교육비 지출이 큰 집단 순으로 각각 1.2배, 1.0배의 승산확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조사대상가계에서 미취학아동에게도 상당 부분(평균 15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층별 교육기회의 격차가 학령기 이전부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희(1977), 이성림(2006), 양정호(2006) 등 중, 고등학생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정호(2006)는 사교육비지출추세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와 가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고 중,상위 계층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결국 출산을 저하, 노후의 복지 불안정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지경(2004)은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은 보육기능과 일반교육기능이 결합된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자녀 1인당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대한 지출비용은 만 2세 이하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총 보육비용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자녀양육과 사교육 이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5세 이하 자녀 특히 영아기 자녀 가계를 위한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의 보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정규 공교육 기관에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열망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 교육 기관이나 TV 등을 통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의 사교육관이 전인교육 보다는 취학 이후의 선행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발달 면에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재교육이 취학 이후의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수학 등 논리적인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데 실상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어떤 특정 분야에 소질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기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의 대상과 적용분야를 더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체육 등의 예체능 부분의 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은 비록 소질이 있다하더라도 아예 그 분야의 진입이 차단된 구조를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분야의 인재가 일정한 계층으로 한정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사교육 부분의 열망을 채울 수 있는 저가의 공급체계 확립이 요청된다. 김선희(1997)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부실이 과외의 한 원인이 됨을 제기하였고 교육소비자의 욕구충족에 부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격차를 연구한 양정호(2006)는 사교육 관련 연구들은 사교육 현상에 대한 실태와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사교육의 형태와 종류 등의 보다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사교육 이용실태 및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인천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관련 요인들의 정교한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지와 분석방법의 개발 및 더욱 체계적인 표본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 사교육, 경제적 부담감

참 고 문 헌

-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교육투자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3호, 101-121.
-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제 10호, 67-79.
-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본 아동양육 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6호, pp.105-116.
- 김선아(2002), 어머니 변인에 따른 유아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 김선희(1997), 사교육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비자문제연구, 19권, pp. 29-53.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137-149.
- 김은미(200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행태 분석.
- 김지경(2003), 자녀연령별 사교육이용-유형과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여성연구 제 67호 2권, 여성개발원, pp. 235-264.
- _____ (2003),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 _____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 김홍주 외 2인(1999), 한국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307-28호.
- 나정 외 4인(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6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4권, 2호, 171-184.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3집 1호, 149-163.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박배진(1999),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 박현주(1998),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연구.
- 서금택(2004), 유아 사교육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

-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pp. 1-18.
- 이기숙 외 3인(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교육인적자원부.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 가정학회지, 제40권 제9호, 143-159.
- _____(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pp.115-132.
- _____(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오효선(2001), 취학전 유아의 조기 교육 실태조사.
- 이홍로(2002), 조기영어교육의배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서울과 대천 지역 간 미취학 아동들간의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 주문자,황덕순(2005), 사교육지출행동에서 비인지요인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제16권 2호, pp.147-165.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6-85.
- 진은주(1998), 유치원 학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교육효율성에 관한 연구.
- 한지혜(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 _____(2003), 사교육비 실태 및 규모 분석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이용실태조사.
- OECD(2004), OECD Fact Book 2004.
- 통계청, <http://www.nso.go.kr/>

(2006. 08. 20 접수; 2007. 03. 28 채택)